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상으로 꼽힌 미륵반가사유상. 사진은 2015년 한국에 전시된 바 있는 일본 주구사에 소장된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이다.

日 인기 1위 불상 '미륵반가사유상'

불상조성업체 호세이상사 20~60대 설문조사

박영빈 객원기자

전국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연령별 선호하는 불상 조사
젊은 층은 천부 신장 선호해
반면 중장년은 불보살 인기

일본에서 연령별로 선호하는 불상에 대한 인기조사가 실시돼 화제다. 1월 15일 일본의 '니코니코 뉴스'는 지난해 연말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불상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늘고 있다. 불상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불상이 가진 특성이나 전설 등에 집중해 불상을 찾아 답사하거나 수집하는 등 이른바 '불상붐'이라는 사회현상이 일고 있다.

불상붐의 시작으로 불리는 현상은 2009년 도쿄박물관 특별전, '국보 아수라전'이다. 나라 코후쿠지(興福寺)에 소장된 아수라상을 중심으로 우수한 불상들을 전시된 이 특별전에서, 오직 아수라상을 보기 위해 약 95만 명의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불상에 대한 흥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된 것이다.

불상조성 · 유통사로 유명한 호세이(鵬盛)상사가 일본 전국의 남녀, 20대에서 60대까지 총 1,000명을 대상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6.4%의 인원이 '불상에 흥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특히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에서 1구 이상의 불상을 실제 소장하고 있다고 답변한 이들은 전체의 23.1%로 예경의 대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불상에 흥미가 있다고 답변한 인원들 가운데 각기 선호하는 불상을 묻는 조사에서, 전 연령에 걸쳐 가장 인기가 많은 불상으로는 미륵반가사유상이 꼽혔다. 뛰어난 예술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과 가장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불상의 이미지라는 점이 인기의 이유로 분석됐다.

또한 2위 부동명왕, 3위 비사문천, 4위 대일여래(비로자나불), 5위 대흑천(大黑天) 순으로 선호 불상이 집계됐다. 반면 가장 인기가 적은 불상은 문수보살이었다. 호세이상사 측은 집계결과에 대해서 "불상은 크게 여래, 보살, 명왕, 천부로 나뉘어 그 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격이 높다고 해서 인기에 비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인기조사에서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불상 1위로는 한국에서 동진보살로 알려진 '위태천(韋馱天)'이 꼽혔다. 또 다른 특징으로 20대가 선호하는 불상은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천부의 신장들로 집계됐다. 반면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불상은 사천왕 중 다문천(多聞天)이라고도 불리는 '비사문천'으로 20대와 비슷하게 천부의 신장들이 인기 높았지만 2위와 3위에 각각 부동명왕과 미륵보살이 집계되어 양상을 달리했다.

한편 종합 1위의 미륵보살은 각각 50대와 60대에서 1위에 집계됐고, 연령이 높을수록 불보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니코 뉴스는 "연령별로 선호하는 불상이 다른 점이 특색이다. 젊은 층일수록 이미지가 강렬한 불상을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스리랑카 불상… 100년 만에 제자리로

英 케네스 벨 목사 가족 '불아사'에 목조불상 반환

"1919년 HCP 벨에게 갔다가 2019년 그의 손자 케네스 벨에 의해 다시 돌아왔다."

정확히 100년 만에 스리랑카의 국보 1호 '불아사'(Sri Dalada Maligwa, '부처님 치아 사리를 보관한 사찰'을 뜻함)로 다시 돌아온 목조 불상의 비문에 새겨진 문구다. BBC 등 외신은 얼마 전 목조 불상을 반환하기 위해 영국에서 스리랑카로 건너온 케네스 벨(Rev. Kenneth Bell) 목사 가족의 이야기를 전했다.


불아사 불상반환식에서 예를 올리는 대중.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케네스 벨 목사는 스리랑카 칸디(Kandy) 지역에 위치한 불아사에 불상을 반환하기 위해 그의 딸 피오나와 함께 동행했다. 높이 14㎝ 크기의 목조 불상은 1919년 그의 조부인 해리 찰스 퍼비스 벨(Harry Charles Purvis Bell, 1851~1937)이 불아사의 한 스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다.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던 HCP 벨은 1890~1912년 스리랑카(당시 실론, Ceylon)에서 최초의 고고학 위원으로 일하며 '고고학의 아버지'로서 추앙받았다.

벨 가문은 1937년 HCP 벨이 스리랑카에서 타계한 후 해당 목조 불상을 영국으로 가져왔고, 지금까지 100년간 가보(家寶)로 보관해 왔다. 불상의 가사와 불두의 장식은 칸디안(Kandyan) 왕조 시대(15~19세기)에 제작됐음을 추정케 한다.

케네스 벨 목사의 딸 피오나는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그 작은 불상이 우리 가족 품에 왔다고 들었다. 나의 할머니는 약혼 증표로 불상을 받았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벨 가문은 최근 "목조 불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됐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뜻을 불아사에 전달한 후 벨 가족 일원은 '반환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햄프셔에 위치한 자택을 떠나 스리랑카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90세가 된 케네스 벨 목사는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앞으로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느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어린 부처님을 집에 돌려보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벨 목사는 "이것은 부처와 예수라는 두 분의 위인에 의해 전파된 불교와 기독교 간 평화와 통일의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케네스 벨 목사는 반환 기념식에 앞서서도 참석자들을 향해 "나는 이것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일보다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목조 불상은 이 법당으로 돌아와 다시 역사적 영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딸 피오나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행사"라며 "우리가 가져간 것을 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영국)가 수년 전 세계 각지를 식민 지배하던 사실을 모두가 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리랑카는 16세기와 17세기에 각각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 이후 1796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네덜란드가 프랑스에게 점령당해 네덜란드 왕실이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영국에게 실론섬 등 일부 지역을 넘겼다. 이에 1815년부터 영국이 스리랑카 전역을 식민지배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자치령을 받아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뤘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원 코끼리 학대… 국제사회 공분

英 메트로, 스리랑카 벨란일라사원 사육사 영상 공개

스리랑카 한 사원의 코끼리가 학대를 당하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영국 일간매체 메트로(Metro)는 1월 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남부에 위치한 벨란일라 사원(Bellanwila Temple)에서 학대당하는 코끼리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벨란일라 사원의 사육사는 미안 프린스(Myan Prince)라는 이름의 15살 수컷 코끼리를 날카로운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리고, 코끼리는 더러운 물웅덩이에 힘없이 옆으로 누워있다. 코끼리의 두 다리는 쇠사슬에 묶여 나무에 고정된 상태다.

게다가 그들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괴로워하는 코끼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끼리 몸통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현지 동물보호단체(RARE)는 "미안 프린스가 학대당한 것은 꽤 오래된 것 같다"며 "사원 측은 이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코끼리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끼리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미안 프린스를 보호구역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학대당한 코끼리 위에서 여유롭게 사진을 찍는 사육사의 모습. 사진출처=메트로

미안 프린스는 2018년 2월 스리랑카의 한 사원에서 먹이를 주려고 다가온 77세 수도승을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프랑스식 日 사찰요리 관심 급증

사찰서 운영하는 '좌선과 쇼진요리 모임' 인기

일본 전통 사찰요리인 '쇼진요리(精進料理)'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졌다. 새롭게 프랑스 요리법으로 조리된 쇼진요리와 함께하는 좌선체험이 사찰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1월 15일 일본의 '야후 뉴스'와 '텔레비전 사이타마'는 이 흥미로운 뉴스를 특별 보도했다.

사이타마현 카와고에(川越)시에 소재한 사이묘지(最明寺)는 13세기에 건립된 천태종의 고찰이다. 사찰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회를 열고 있는 사이묘지는 지난해 봄부터 새로운 좌선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좌선과 쇼진요리의 모임'이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회 정원을 채우는 등의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전 일찍 좌선을 하고, 점심공양으로 회향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연 프랑스식 쇼진요리다.

먼저 법당에서 사이묘지의 부주지 치다 묘칸 스님의 설명에 따라 좌선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좌선을 하는 동안 후원에서는 쇼진요리가 조리된다. 요리를 맡은 이는 인근사찰 쇼센지(常泉寺)의 부주지인 오리하시 다이키 스님. 다이키 스님은 실제 프랑스 식당에서 셰프로 근무한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요리법으로 조리된 쇼진요리. 사진출처=사이타마 텔레비전 보도화면 갈무리

모든 요리는 육류와 해산물을 일체 쓰지 않는 채식. 겉모습은 전통적인 쇼진요리지만 프랑스식 요리법을 이용해 조리된다. 다이키 스님은 "모든 재료는 지역에서 제철채소를 사용한다. 특히 신도들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처음 보는 식재료를 받기도 한다. 요리인으로서도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칸 스님은 "불교나 사찰요리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다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한 사찰과 불교의 활용방안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